

한국어 *Wh*요소의 화용적 쓰임

송상헌*

(워싱턴대학교 언어학과)

Sanghoun Song. 2010. *Pragmatic Usage of Wh-elements in Korean. Language Information*. Volume 10. 95-117. This paper investigates peculiar usages of *Wh*-elements in Korean. The usages that this paper covers, which often refer to rhetorical questions, have a property of both interrogatives and quantifiers simultaneously. That means, the *Wh*-elements function like a trigger to derive the form of interrogative sentences, but they convey quantificational readings. This paper provides several constraints of the peculiar usages of *Wh*-elements; in particular, the *Wh*-elements show a tendency to co-occur with some adverbs that express speaker's psychological status. On top of this, this paper also looks into the pragmatically peculiar usage of 'why' in Korean. If the 'why' word in Korean appears in tag questions, it assumes two properties; one is the word itself is optional, the other is the word always co-occur with stative verbs. (Dep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Key words: *Wh*-element, *Wh*-word, pragmatic usages, constraints on *Wh*-element

1. 서론

다음의 대화는 실제 드라마 대본(고맙습니다 5회)에서 인용한 것으로 짧은 대화 안에서 3개의 *Wh*단어가 출현하고 있다. 3개의 *Wh*단어가 각기 쓰임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1) - 기서, 돌아보면, 가방을 멘 봄이, 실내화 가방 흔들며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다.

봄 : 같이 가요오..... (기서 옆으로 달려오더니 주저앉으며 죽을 듯이 숨을 몰아쉰다)

* Dep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sanghoun@uw.edu)

본고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최재웅 교수님과 유석훈 교수님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아울러 익명의 심사자 세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다.

기서 : (걱정되지만, 애써 건조하게) 왜 그렇게 뛰어 와? 누가 쫓아 와?

봄 : (고개 저으며 숨을 헐떡이며) 같이 가자구....백번도 넘게 말했는데....
왜 혼자 가요?

기서 : 너 어디 가는데?

봄 : ...학교요....아저씨 어디가요?

기서 : 지금이 몇신데 학꼐 가?

봄 : 지각인데요. 괜찮아요. 난 맨날 지각이에요요, 원래.

Why-단어의 본래적 기능은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형의 문장을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위 처음에 나타나는 ‘왜’의 경우에는 애초에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의 문장을 생산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는 앞의 지시문의 ‘애써 건조하게’ 또는 그 다음 행의 답변 등의 전후 맥락에서 추론할 수 있다. 이 의문문에 이어서 ‘누가 쫓아 오나’는 다소 불평조의 문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 의문문을 접한 상대의 답변에서도 ‘왜’에 해당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문장의 형태는 *Why*-요소를 포함한 전형적인 의문문이지만 그 대화상의 기능은 그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왜’가 포함된 문장은 답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의문문과 상대의 태도에 대한 질타를 하고자 하는 대화상의 기능의 중간적 위치에 놓인다. 즉, ‘내가 그렇게 같이 가자고 연거푸 말했음에도 무슨 일로 인해 혼자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동시에 ‘당신과 함께 가고 싶으니 그렇게 혼자 가버리지 말라’는 불평 섞인 당부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어디’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의문문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이 질문에 대한 상대의 답변도 ‘어디’에 대한 정보를 ‘학교’라는 대상으로 화답한다. 이를 통해 보면, 실제 *Why*-요소의 쓰임에 대한 분석은 실제 대화나 상황을 완전히 떠나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Yes/No 의문문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Why*-의문문의 경우에는 그 질문의 형태와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폭넓은 담화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1.1. 연구의 목적

Why-요소는 현대 언어학 이론에서 가장 빈번히 또 중점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는 종래의 GB 이론과 최근의 최소주의의

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동 현상과 관련이 되면서 특히 통사론에서 중요하게 연구되었다. 변형을 골자로 한 이러한 선행 연구는 *Wh*-요소를 형식언어학의 이론적 틀에 도입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의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자칫 *Wh*-요소들이 가지는 본래의 특성이나 화용적 기능 등이 경시되어 온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사론을 비롯한 현대 형식주의 언어학이 문장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나, *Wh*-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Wh*-단어 혹은 표현이 가지는 제반 화용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위 (1)에서 처음에 출현하는 ‘왜’ 또는 두 번째로 출현하는 ‘왜’와 같은 것이다.¹⁾ 우선은 *Wh*-요소가 화용론적 쓰임²⁾을 가지는 경우를 개괄하고 분석을 도모한 뒤, 화용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Wh*-요소 가운데서도 특이한 쓰임을 가지는 “왜”의 경우를 더 살펴볼 것이다.

1.2. 연구의 자료

본 소고에서는 그 연구 특성상 문맥에 기반한 대화 예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분명한 전후 맥락을 포함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화용적 표현은 문어체 보다는 대화체 구어에서 보다 빈번히 노출된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 택한 자료는 한국 드라마 대본이다³⁾. 본 소고에서는 각

1)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구문을 흔히 수사적문문 (rhetorical questions)이라 칭하여 강조의 의미를 내포하는 대화상의 용법으로 분류한다. 즉, 청자의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하는 것이기 보다는 화자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수사적문문 역시 통사 및 의미적 현상과 일정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Wh*-요소가 수사적문문으로 전이되기까지의 통사, 의미, 분포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수사적문문의 용법이 단순히 강조 또는 반어로만 설명되지 않는 예가 있으므로, 그 실제적인 용법을 살피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2) 또 다른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사적문문에 대해서는 담화 분석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담화상의 표현 및 문체 등의 차이가 수사적문문 실현 양상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연구 과제가 될 것이므로 후행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본고는 그 종합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통사, 의미, 분포 각 단계의 제약을 살피고, 이를 *Wh*-요소의 쓰임과 연계하는 데 의의가 있다.

3) 경우에 따라, 세종 구어 발음치와 같은 실제 구어 발음치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연구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드라마 대본이라는 준구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준구어 자료는 구어의 성향을 포함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말실수 등이 적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을

16회로 구성된 3개의 드라마 대본, 총 48개를 통해 관련된 대화 예시를 수집하였다.

- (2) 드라마 대본: 총 48회분⁴⁾
- a. “내 이름은 김삼순” 16회분
 - b. “환상의 커플” 16회분
 - c. “고맙습니다” 16회분

2. *Wh*-요소의 화용적 쓰임과 관련 제약

한국어의 경우 *Wh*-단어는 의문사구를 생성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부정형 명사구로서의 양화사적 쓰임을 가진다.

- (3) 누구 : who, someone
- a. 누가 왔나?
 - b. Who does come?
 - c. 누가 왔다.
 - d. Someone comes.
- (4) 무엇 : what, something
- a. 무엇을 먹었니?
 - b. What did you eat?
 - c. 뭐를 좀 먹었어.
 - d. I ate something a little bit.
- (5) 언제 : when, sometime
- a.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 b. When will we meet again?
 - c. 언제 다시 만나자.
 - d. Let's meet again sometime.
- (6) 어디 : where, somewhere
- (7) 어떻게 : how, somehow

최대한 배제할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4) 각 드라마 대본은 해당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8) 왜 : why, ?⁵⁾

그러나 앞의 (1)에서 *wh*-요소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문사와 양화사 둘 사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드라마 대본(환상의 커플 2회)에서 취한 아래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9) 빌리 :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 이혼 해.

안나 : (차갑게)못해!!

빌리 : (의외의 반응에 깜짝 놀라 보면)

안나 : 당신은 내 나이 12살 이후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야.

빌리 : 당신이 언제 날 가족 취급 해줬어?

안나 : 가족 취급해서 한번 봐 주는 거야! 오늘 들은 말, 없던 걸로 쳐 줄게.

빌리 : 안 쳐줘도 돼.

위에서 밑줄 친 ‘언제’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도록 하자. 우선 문장의 구조가 의문형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위 한국어 *wh*-요소의 구분 가운데 의문사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뒤 맥락을 다시 살펴보면 꼭 그렇게 분석할 수만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위 상황에서 ‘빌리’의 질문은 자신이 궁금한 바를 상대 ‘안나’에게 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신을 한번으로 가족으로 취급해 오지 않았다고 여기는 상대 ‘안나’에 대한 불만 토로의 성격에 가깝다. 즉, 실제로 있어서는 ‘한번이라도’와 의미가 상통한다. 또한 ‘안나’의 대답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 수 없다. ‘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장의 외연은 의문형 논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포는 이와 일치하고 있지 않다. 내포의 관점에서 위 질문을 바꿔쓰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이후의 바꿔쓰기는 애매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영어로 기술하고자 한다.

(10) 빌리 : 당신이 언제 날 가족 취급 해줬어?

a. ≡What I want to know is when you treated me as your family.

b. ≈You have never treated me as your family.

5) ‘왜’가 다른 요소와는 달리 부정형 명사구로서의 쓰임이 거의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왜’의 경우에는 추후 소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보면, *wh*-단어가 의문사와 양화사로 쓰임이 구분된다는 정리는 실제 화용적 맥락에서 완전히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10)의 ‘언제’가 통사적으로는 의문사에 속하지만, 의미적으로는 ‘anytime’ 또는 ‘never’와 유사한 양화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결국 통사론과 의미론적 관점의 형식적 설명으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분에 있어서는 화용적 맥락에 준한 판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1) 한국어 *wh*-요소의 분류

- a. 의문사 (an interrogative)
- b. 부정형 명사구 (an indefinite NP)
- c. 화용 맥락에 따라 a와 b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요소

논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시를 하나 더 든다면 아래(환상의 커플 4회)와 같다. 아래에서 마지막 ‘안나’의 발화는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닌 독백에 해당한다. 즉, 문장의 구조는 명시적이던 비명시적이던 *wh*-요소의 이동을 유도하는 의문문 형태이지만⁶⁾, 그 실제 기능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서 ‘언제’가 함축하는 바는 아래 (13b)에 가깝다. 즉, 자신이 팔이 아픈데 파스를 제때 사다 주지 않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의 토로라 하겠다.

(12) 근석 : 아줌마. 물 줘요.

안나 : (물통 잡으려다 아프다 내려 놓는다) 니가 따라먹어.

난 팔이 아파. 넌 멀쩡하잖아. 너 몇 살이야.

근석 : 8살이요.

안나 : 8살이면 물은 따라 먹을 수 있는 나이야.

(하고 손목 매만지며 중얼) 파슨 언제 사오는 거야.

(13) 파슨 언제 사오는 거야.

- a. ≠What I want to know is when you will bring me a poultice.
- b. ≈He has not yet brought me a poultice
(, though I have pain in my arm).

6) 본고에서는 한국어 역시 비명시적(covert)으로 이동이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를 수용하여 이를 기본 전제로 할 것이다. *Wh*-요소의 (비)명시적 이동에 관한 선행 연구는 Huang (1982), Pesetsky (2000) 또는 Grewendorf (2001)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외연과 내포의 불일치⁷⁾

화용론에서 분석의 근간으로 삼은 대상 가운데 하나로 의미삼각도 모델에서 외연과 내포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앞 (12)의 예에서 외연은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형태로 구현되지만, 그 내포는 화자의 심정 상태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는 (11c)에서 나타난 중간적 성격과도 궤를 함께한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예시들은 통사적 분석과 의미적 분석의 단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통사적 입장에서는 *wh*-요소를 의문사로 보고 도출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의미적 해석의 단계에서는 그 요소를 의문사로 파악하여 표상하였을 경우, 그 논리식이 그 문장이 자연 언어에서 가지는 진리조건과 불일치하게 된다. 거꾸로, *wh*-요소를 부정형 명사구로 해석하였을 경우 분석에서 이동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통사 및 의미 차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화용론 상의 쓰임의 하나로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2 절에서는 이와 같은 쓰임의 기본적인 제약 사항을 살펴보고, 2.3 절에서는 그 화용적 쓰임을 고찰하겠다.

2.2. 관련 경향성 및 제약

2.2.1. 인칭에 따른 경향성

Wh-요소가 포함된 의문문에서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이 문장은 대체로 (11c)의 성향을 보인다. 아래 (14), (15), (16)의 대화 예시를 보도록 하자(환상의 커플 8회, 내 이름은 김삼순 11회, 고맙습니다 1회).

(14) 철수 : (기막히고 웃겨서) 상실이. 너 뭇 때때 그렇게 시비 걸고 다녔어. 어?

안나 : (보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다 너 때문인 거 같애.

철수 : 내가 뭘 기억 하나라도 돌아올까 해서 따라 다녀 줬더니. 내가

7) 한 심사자는 부정명사구를 양화사로 간주하는 경우 양화사와 *wh*-구문이 통사론 관점에서 크게 같은 분류에 속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 의문문을 유도하는 것은 의문사로서의 *wh*-요소의 기본적 통사 관계로 보고, 양화사적 쓰임은 영어의 ‘anytime’ 또는 ‘anytime’ 등과 유사한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어쨌다구~.

(15) 진헌 : 누가 양다릴 걸쳤다 그래!

삼순 : 방금 걸쳤잖아. 너 거짓말 했어. 얼굴도 하얗게 질려서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

진헌 : !... 내, 내가 언제!

삼순 : 봐, 말 더듬잖아. 그리고 왜 또 날 바보로 만들어? 왜 하필이면
날 옆에 앉혀놓고 거짓말을 하나구 기분 더럽게!

(16) 이노인 : 넌 못생긴 메주야!

봄 : 나 메주 아니예요. 이봄이에요. 내가 왜 메주예요!

이노인 : 바보.. 메주야 넌!

봄 : 아휴! 내가 왜 메주야! 이봄이지!

통상의 경우,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모르는 정보에 대한 것을 알아내고
자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화자인 1인칭이 주어에 놓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14-16)의 경우와 같이 1인칭이 의문문의 주어로
놓이는 경우에는 이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대화 상대방에게 묻고자
하는 경우이기 보다는 다른 의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14)에
서 ‘내가 뭘!’의 외연은 (17a)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내포는 (17b)에
가깝다.

(17) 내가 뭘!

a. What did I do?

b. I did not do anything.

그러나 실제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제약에 있어서도 *wh*-요소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8개 드라마 대본에서 ‘내가’와 *wh*-요소가
연달아 나오는 문장, 예컨대 ‘내가 뭘-’, ‘내가 언제-’, ‘내가 왜-’를
차례로 찾아 (11)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그 분포는 아래와 같다.

(18) ‘내가 *wh*-’〈표 1〉 ‘내가 *wh*-’ 분포표

내가 <i>wh</i> -	(11a)	(11b)	(11c)	비율 = (11c) / 전체
내가 <u>뭘</u> -	2	2	8	67%
내가 <u>언제</u> -	0	0	10	100%
내가 <u>왜</u> -	32	0	20	38%

위에서 ‘내가 뭘-’과 ‘내가 언제-’가 차이를 빚는 까닭은 ‘뭘’의 경우에는 동사의 논항으로 사용됨에 비해 ‘언제’는 부가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부가어의 경우 통사적으로 구속받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11c)로의 산출이 매우 자유스러운 반면, 논항인 경우 통사적으로 영향을 받는 바가 강하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라 하더라도 동사적 쓰임을 많이 따라가게 된다고 판단한다. 한편, ‘왜’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더라도 (11c)로의 화용적 쓰임이 많지 않은데, 이는 앞 (8)에서 본 바와 같이 ‘왜’의 경우 한국어에서 부정형 명사구로서의 양화적 쓰임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왜’는 (11c)의 가능성이 양화적 쓰임을 분명히 가지는 ‘언제’ 등에 비해 낮다. 특이성을 보이는 ‘왜’에 관련하여서는 다음 3절에서 보다 설명하고자 한다.

2.2.2. 어휘 제약

앞서 살펴본 예에서와 같이 *wh*-요소가 (11c)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대체로 그 문장의 문맥상의 의미는 ‘불평이나 불만의 토로’나 ‘반론 제기’에 가깝다. 따라서 부사나 부사구 등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적 용법을 지니는 것들과 결합을 하면 그 문장의 의미는 문맥상에서 보다 뚜렷해진다.

- (19) 삼순 : 봐 이 자식아! 안 봐?! 이 자식이 감히 누굴 때려?
 (둘의 요동에 밀려-또는 아무렇게나 내지르는 현우의 팔에 맞고 -
 엉덩방아 찼었다가 발딱 일어나더니 현우의 팔을 땄다 물어버린다)
 현우 : 아아악!
 채리 : 야! 너 감히 누굴 물어!
 삼순 : 개 한 마리 물었다! 어쩔래!

위의 예에서 ‘감히’는 ‘상대가 두려움을 모르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어 청자의 태도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내포하는 어휘이다. 이러한 어휘가 *wh-*요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 문장은 예외 없이 (11c)의 쓰임을 가지게 된다. 즉, 애초에 질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강한 불만이나 반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발언에 해당하는 것이다.⁸⁾

이 ‘감히’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휘로 ‘또’가 있다. 이는 상대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낸다거나, 다른 문제와 덧붙여 지금의 문제가 생겨난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아래의 예는 그 각각이다 (환상의 커플 9회, 고맙습니다 13회).

(20) - 철수 계산 마치고 돌아섰는데 보면 안나 없다.

철수 : 상실이 애 또 어디 간 거야...(두리번 하는데 없다)

(21) 석현모 : (짜증난 표정 지으며 두섭모 손을 탁 쳐낸다)

놔야! 이 삽살개 뒷다리 같은 년! 이 년은 또 어떻게 알구 왔어.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에’ 등의 표현도 *wh-*요소와 어울려 비슷한 제약을 형성한다 (고맙습니다 7회, 내 이름은 김삼순 5회).

(22) 심심 : 어디 갔다 인제 와?

(23) 삼순 : 근데 넌 뭐야. 그 돈 니가 벌었니?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어?! (재빨리 두리번거리더니 책상 위 꽃병을 땀다 집어던진다)

이들 표현은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실제 드라마 대본이나 세종 말뭉치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11c)로 사용되는 *wh-*요소는 이들 어휘와 공기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2.3. 부정의 내포

앞서 몇 차례 시도한 바뀔쓰기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11c)의 표현은

8)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the hell’이다 (김지영 2007).

What the hell is that?

≠What I want to know is that.

≈That is something which I really hate.

부정(negation)을 내포하고 있다. 즉, 외연상으로는 부정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으나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부정의 연산자(operator)를 해석상에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24) 내가 왜 그러겠니?

≈ I don't need to do so.

(25) 당신이 언제 날 가족 취급 해줬어?

≈ You have never treated me as your family.

(26) 내가 뭘!

≈ I did not do anything.

즉, 진리조건상으로 외연상의 발화행위가 거짓임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진리조건상의 숨어있는 부정 연산자(negation operator)는 화용적 맥락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식의미론의 논리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2.3. 화용적 쓰임

다음으로 (11c)와 같은 표현이 출현하였을 경우, 그 표현이 화용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경향성 및 제약이 실제 기능들과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2.3.1. 불만의 표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주어진 상황이 화자의 입장에서 못마땅하거나 청자의 언행에 대해서 짜증 또는 화를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 (24), (25), (26) 가운데는 (25)가 이에 해당하며, 아래의 (27)역시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고맙습니다 8회).

(27) 은희 :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두 안 받구!

석현 :비켜! 내가 하께....(은희 손 잡아 내려주고 자기가

석현모의 허리를 주물러 주는)

위에서 ‘은희’의 질문은 ‘석현’이 어디에 다녀왔는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다는 ‘핸드폰도 안 받고 해서 어디에 있는지 걱정을 했다’는 불평의 의도로 파악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앞선 분석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이 경우의 ‘어디’ 역시 의문사구와 부정형 명사구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장의 형태는 의문문의 구조를 택하고 있으나 의미적으로는 ‘where’ 보다는 ‘anywhere’의 해석에 가깝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 연산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하여 어휘적 제약으로 제시된 ‘감히’, ‘또’ 등과의 공기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의 (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어휘와 공기하였을 경우에도 진리조건을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8) a. 은희 :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도 안 받구!
 b. 은희 : 감히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도 안 받구!
 c. 은희 : 또 어디 갔다 왔어? 핸드폰도 안 받구!

2.3.2. 반론의 제기

이는 상대의 화행에 대한 반문의 형태로 보통 실현된다. 상대가 가정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29) 봄 : 그 도둑놈 아저씨도 천사야?
 영신 : 누가 천사래?
 봄 : 보람이 엄마가....천사래. 그 도둑놈 아저씨가.

위에서 ‘누구’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분석을 해 보면 위 질문문의 내포는 아래와 (30a)와 같을 것이다. 즉, 부정 연산자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감히’, ‘또’ 등의 어휘와도 문제없이 공기할 수 있으며, 이때 문장의 의도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30) 누가 천사래?

- a. ≈Nobody thinks him an angel.
- b. 감히 누가 천사래?
- c. 또 누가 천사래?

조금 더 관련 자료를 보자면, 아래 (31)의 대화 예시에는 위 ‘불평’의 기능과 ‘반론’의 기능이 화행에서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처음의 ‘왜’는 자꾸 화를 내는 상대에 대한 불평이며 그 다음 문장의 ‘언제’는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반론의 성격을 지닌다.

(31) - 짜증스런 얼굴로 운전하는 진현.

- 꿀꿀이를 안고 있는 삼순.

삼순 : 음악 없어요?

진현 : 그냥 가요.

삼순 : (보는)... 왜 자꾸 화를 내요?

진현 : 내가 언제요.

삼순 : 아까부터 계속 짜증 내고 있잖아요.

진현 : 신경 끄시죠 아주머니.

2.3.3. 난처한 상황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법이 없을 경우에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사용되는 예시이다. 아래 (32)에서 ‘어떻게’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32) 철수 ‘괜찮아’ 하면서 달래는데, 안나 웅크리고 있는데 우는 것 같다.

철수 : (당황) 좋네, 잘됐네. 너 우냐.

안나 : (숙인 채) 내 머리 어떡해...(흐흐흐)

이렇게 하구 어떻게 가.. 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일
아침에 머리풀고 갈꺼야.

철수 : 야 여기서 어떻게 밤을 새 그냥 가자.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마찬가지로 바꿔쓰기와 어휘 제약 관계를 검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33) 이렇게 하구 어떻게 가.
 a. ≈I cannot go (home) with this hair.
 b. 이렇게 하구 감히 어떻게 가.
 c. 이렇게 하구 또 어떻게 가.

2.3.4. 정리

앞 2.2에서 언급한 경향성 및 제약이 본 소절에서 살핀 각 기능들과 가지는 연관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칭 경향성의 경우에는 1인칭이 주어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18)의 분포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그 문장이 (11c)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누가’ 등과 같이 주어 자체가 *wh*-요소인 경우도 있으므로 (11c)를 입증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은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감히’, ‘또’ 등과 같이 화자의 심리상태를 드러내는 어휘와의 공기 제약은 살펴본 예문에서 모두 검증되었다. 끝으로 부정의 내포는 ‘누구’, ‘무엇’ 등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나 ‘언제’, ‘왜’와 같은 부가어 항목에 대해서는 (27)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론의 여지가 있다. 즉, 화행을 분석할 때 *wh*-요소를 포함한 어느 문장 또는 표현이 (11c)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할 때, ‘감히’, ‘또’와 같이 화자의 심리상태를 드러내는 어휘와 공기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판별기준이다.

3. “왜”의 특이성

다른 *wh*-요소들과는 달리, ‘왜’는 앞서 살핀 쓰임 이외에도 별도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 (34) 현무 : 그렇게 해서 마르세유에 도착했는데 돈은 없고 배는 고프고
 어떡해, 여기서 하던대로 시장엘 갔지. 가서 무작정 허드렛일
 도와주고 밥이나 얻어먹자 그랬는데?
 이영 : (시큰둥)...
 현무 : 왜 있잖아요. 우리도 어시장 같은데 가면 시장사람들이 생선대가
 리랑 무랑 대충 텀벙텀벙 집어넣고 고추장 풀어서 얼큰하게 끓여

먹는 거.

(34)의 “왜”는 앞서 살핀 경우와도 자못 차이가 있다. 우선, 통사적으로 ‘-잖아-’와 같은 부정의문문(negative question) 또는 부가의문문(tag question)을 유도하며 평서 의문문을 유도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왜’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앞의 예시들이 주로 태도와 관련이 되는 것과는 달리 ‘왜’에 해당하는 이유가 주어진 화행이 별반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끝으로 (34)의 “왜”는 얼마든지 생략이 가능하며 생략이 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의미와 역할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에서 또 구분된다. 본 소절에서는 위 (34)와 같은 경우에서 사용된 “왜”의 특이성에 대해 더 살펴보려고 한다.

3.1. 기존 접근법의 문제점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34)의 “왜”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설명한 기존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4)의 “왜”와 같은 성분이 왜 특이한가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1. 사전 정의의 문제점

현행 종이사전의 경우를 살펴보면 (34)의 “왜”를 흔히 감탄사⁹⁾로 분석하고 있다. (35)는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문과 예문이며, (36)은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의 정의문과 예문이다.

(35) 왜 - [Ⅱ][감탄사] 어떤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할 때 쓰는 말.

- ▶ 왜, 자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잖아.
- ▶ 왜, 그 사람 술만 먹으면 말이 많아지잖아.
- ▶ 왜, 우리말에 궁합이란 게 있지. 늙은이들이 사주팔자를

9) 이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감탄사’ 이외에 ‘간투사’, ‘담화표지’, ‘화용표지’의 용어로도 쓰인다. 여기서는 사전적 정의 또는 코퍼스 기술 지침을 받아 들여 우선 ‘감탄사’로 명시하되, 실제로 그 쓰임은 ‘담화표지’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는 점에서 3.3부터는 ‘담화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한다.

따져서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궁합 말야.《선우회, 깃발 없는 기수》

- ▶ 시장 한가운데 있지 왜, 김이 무럭무럭 나는 돼지고기와 순대 파는 데 말야.《이병주, 행복어 사전》

(36) 왜4 [감탄사] 할 말이 곧바로 생각나지 않을 때 내는 소리.

- ▶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니 왜.

- ▶ 거 왜, 나리 엄마 같은 여자 있지 않아?

(35)의 정의문에서는 “왜”의 기능을 대화상에서 청자에게서 어떠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예문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왜”라기 보다는 어말어미 ‘-잖아’, 또는 ‘-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자의 확인을 내포하는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정의문에서 명시된 기능은 이미 충족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왜”가 주어진 예문에서 생략된 경우에도 정의문에서 제시한 화행상의 기능이 그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7) a. (왜) 있잖아요. 우리도 어시장 같은데 가면 시장사람들이 생선대가리랑 무랑 대충 텀벙텀벙 집어넣고 고추장 풀어서 얼큰하게 끓여먹는 거.
- b. (왜,) 자기가 아프면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잖아.
- c. (왜,) 우리말에 궁합이란 게 있지.

“왜”가 (35)의 정의문에서 명시된 기능을 하는 감탄사라면, 그 단어가 출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문장의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 즉, ‘확인’의 기능이 약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37)의 예를 살펴건대, 그렇지 않다.

한편, (36)의 정의문에서는 “왜”가 일종의 ‘시간 벌기’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 벌기’ 기능을 주어진 정의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발화를 완성하고자 수행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표적인 ‘시간 벌기’ 기능을 수행하는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인용한 아래 (38)과 같이 화자가 하고자 하는 발화의 앞에 놓인다.

- (38) a. 저, 뭐냐 아랫마을 상돌이가 다녀갔었어.
 ≡ 뭐냐 아랫마을 상돌이가 다녀갔었어, 저.
 b. 그 사람이 음……저, 뭐라더라. 그래,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이라.
 ≡ 그 사람이 행글라이더 타는 사람이라, 음……저, 뭐라더라. 그래.

이는 ‘시간 벌기’라는 기능적 속성으로 보아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36)의 첫 번째 예문에 나타난 것처럼 “왜”는 발화의 전후 혹은 중간, 어느 위치에도 자유롭게 출현할 수 있다. (39a-c)는 서로 진리조건상의 차이가 없다.

- (39) a. 왜,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니.
 b.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니, 왜.
 c.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왜,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니.

즉, “왜”가 후행하는 발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3.1.2. 코퍼스 기술의 문제점

세종 코퍼스를 살펴보면 (34)의 “왜”와 같은 항목은 ‘IC’ 즉, 감탄사로 태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200만 어절 규모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를 검색한 결과 ‘IC’ 표지를 단 “왜”는 총 46회 출현한다. 그러나 그 경우의 “왜”는 (34)의 예문과는 다른 쓰임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본래적 의미의 감탄사에 가까운 것으로 (34)와는 다르게 별다른 제약을 지니고 있지 않다.

- (40) a. “왜, 안 됩니까?”
 b. “왜, 뭐가 마음에 걸려요?”
 (41) a. “왜, 잘 아시잖아요.”
 b. “왜, 그런 느낌 있잖아.”

(41)의 “왜”는 지금까지 논의해 온 “왜”의 특이한 용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40)의 “왜”는 그렇지 않다. 감탄사가 문장의 도출 구조와

별도로 산출되는 품사이며, 그 사용상에 별다른 통사적 의미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40)의 “왜”는 일반적 의미의 감탄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앞의 (11a) 또는 (11c)로의 사용이 문맥에 따라 자유롭다. 반면 (41)의 “왜”는 ‘-잖아’와 같은 부가의문문 혹은 확인의문문과 공기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 따라서 (41)의 “왜”를 일반적인 범주의 감탄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이는 한국어 어휘의 특이성을 포착하지 못하는 단점을 낳게 된다.

3.1.3. 정리

정리하자면, (34)의 “왜”와 같은 요소는 일반적 차원의 감탄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즉, 감탄사가 통상 도출상의 제약이 없으면서도 담화상에서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34)의 “왜”는 거꾸로 통사 및 의미상의 제약을 지니면서도 담화상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이 “왜”를 넓은 범주의 감탄사 영역에 포함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 특이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왜”의 특이성에 대해서 차례차례 분석할 것이다.

3.2. “왜”의 특이성

3.2.1. 분포적 특성 : 수의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감탄사 또는 담화표지는 그 나름의 의미를 수반한다. 따라서 그 감탄사가 화행에서 출현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달라진다. 다음 드라마대본의 대화문을 살펴보자.

- (42) 미스김 : 언니이...나 줌 살려줘요.....아퍼 죽겠어.....나 줌...
 나 줌 살려 줘요.....(아악!!)
 간호사 : 스쿠터 타고 배달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 (43) 성구 : 봄이네 굴 받이 몇 평쯤 되냐? 한 천평은 된다던데....
 그래?
 미스정 : 글쎄, 그건 나두 모르겠는데....

(42)에서 ‘아악’은 비명소리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감탄사로서 그 단어가

나타났을 경우 어느 정도 아픈지 청자에게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 이 단어가 출현하지 않으면 화자인 ‘미스김’의 상황을 표상하는 데 언어적 차이가 빚어진다. (43)의 경우 ‘글쎄’는 담화표지의 한 가지로서 화자가 그 내용을 생각하거나 떠올리는 데 시간이 필요함을 표상한다.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출현하지 않고 막 바로 답을 한 화행과는 미묘하지만 의미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바와는 달리 (34) 또는 (41)의 “왜”는 문장에서 출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44)¹⁰⁾에서 다시 확인해보자.

(44) 갑 :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을 : “준이도 저도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어요.

(왜,) 잘 아시잖아요.”

(44)의 “왜”가 수의적으로 출현한다는 점으로 보아, 이 “왜”는 (42-43)의 감탄사 또는 담화표지에 비교하여 그 기능적 역할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3.2.2. 통사적 특성 : 부가의문문 ‘-잖아-’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은 대개 ‘-잖아-’와 같은 구성 형식을 취한다. 이는 아래 (45a)와 같은 ‘-지 않아-’와 같은 부정의문문의 축약형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아래 (46a)와 같은 구성의 경우에도 이 문장은 (46b)와 같은 문장에서 뒤의 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5) a. 왜, 나리 엄마 같은 여자 있지 않아?

b. 왜, 나리 엄마 같은 여자 있잖아?

(46) a. 왜, 우리말에 궁합이란 게 있지.

b. 왜, 우리말에 궁합이란 게 있지 않아.

c. 왜, 우리말에 궁합이란 게 있잖아.

주목할 점은 “왜”가 이러한 ‘-잖아-’ 구성 이외의 문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 문장은 앞서 살핀 (34) 또는 (41)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10)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 BTEO0287에서 인용

- (47) a.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b. 왜 또 날 바보로 만들어?

(47)에 나타난 “왜”는 앞 소절에서 밝힌 것처럼 수의적이지 않다. 또한 청자의 답변을 요구하거나 상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11a) 또는 (11b)의 “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담화표지는 어울리는 문장의 도출과정과는 별도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통사적 제약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담화표지라기 보다는 문장의 구성에 작용하는 어휘 요소로 보아야 한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왜”를 담화표지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통사적 특이성은 설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문을 내포하는 ‘-잖아-’는 (35)의 정의문이 밝히는 것처럼, 청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확인의문문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영어의 부가의문문의 구조와 유사하다. 앞 소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1차적 요소는 ‘-잖아-’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는 이와 같은 통사적 요소와 공기하지 않으면 (34) 또는 (41)의 의미를 취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감탄사 또는 담화표지가 통사적 제약을 가진다는 점이 “왜”의 가장 큰 특이성이라 하겠다.

3.2.3. 의미적 특성 : 동사의 상적 경향성

마찬가지로 의미적 특성도 발견된다. 감탄사 또는 담화표지가 일반적으로 통사적 제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감탄사 또는 담화표지는 결합하고자 하는 문장의 동사의 상적인 특성과도 별다른 상관관계를 지니지 못한다.

- (48) a. 글썄, 예쁘네.
b. 글썄, 울고 있네.
c. 글썄, 밥 먹었을걸.
d. 글썄, 영희가 철수를 때리곤 했지.

이와 관련하여 “왜”는 결합하는 동사의 특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경향성을 보인다. 결합하는 동사는 예외 없이 ‘상태동사’라는 점이다. 실제로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에 나타난 ‘왜 … -잖아-.’ 형태의 문장을 검색하여

보면 그때의 동사는 단 2개 뿐이다. 하나는 ‘있다’이며, 다른 하나는 ‘알다’이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대본 ‘고맙습니다’ 총 16회분에서 출현하는 ‘왜 … -잖아-.’ 형태의 문장의 경우에는 동사가 ‘있다’ 뿐이었다.

- (49) a. 왜, 있잖아요.
b. 왜, 아시잖아요.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장 형태를 찾아보았다.

- (50) a. “왜, 예쁘잖아.”
b. “왜, 울잖아.”
c. “왜, 먹잖아.”
d. “왜, 때리잖아.”

위 검색에서 (50a)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다수 있는 반면 나머지 3개의 동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위 4개의 동사 모두 비교적 고빈도 어휘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왜”가 (34) 또는 (41)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주로 상태동사와 결합한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의 ‘-잖아-’의 속성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자에게 어떠한 것을 확인한다는 점은 그 대상의 현재 상태를 확인한다는 말로도 환원할 수 있다. 따라서 상태를 묘사하는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러울 것이다.

3.3. “왜”의 범주와 기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4)의 “왜”는 *wh*-요소로서는 그 기능이 부족하고 담화표지로서는 불필요한 통사적 제약을 가진다. 이러한 바, (34)의 “왜”는 *wh*-요소와 담화표지의 중간적 속성을 지닌다고 정리할 수 있으며, (11c)와는 또 다른 화용적 쓰임을 가진다.

(34)의 “왜”는 어휘적 또는 문법적 속성이 분명한 *wh*-단어에서 담화표지로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요소가 아닐까 한다. 한편 “왜”는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합관계에 있어서 선택제

약을 보인다. 문법화의 과정에서 그 정도성이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34)의 “왜”는 *wh*-단어에서 담화표지로 변화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wh*-단어로서의 통사적 속성은 아직 남아있는 반면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점을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고에서는 *wh*-요소가 상황에 따라 화용적으로 특이한 용법을 보일 수 있음을 살피고, 드라마 대본 자료를 중심으로 그 예를 추려보았다. 또한 다른 *wh*-요소와는 다르게 “왜”는 부가의문문에서 사용되는 특이한 쓰임이 하나 더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나아가 관련된 경향성 및 제약을 도출하고 이러한 쓰임의 구체적 하위 양상에 대해서 분류를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거친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1) *Wh*-요소의 화용적 쓰임

- a. *Wh*-요소가 포함된 의문문의 경우 그 외연과 내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b. 이 경우 통사적으로는 *wh*-요소를 의문사로 받아들여 의문형 문장을 도출하지만, 의미론적으로는 *wh*-요소가 부정형 명사구로 해석되어 양화사에 가까운 해석을 지닌다.
- c. 이러한 문장은 ‘감히’, ‘또’ 등의 문맥상 화자의 심리상태와 관련된 어휘와 자연스럽게 공기하며 이때 문장의 상황적 진리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 d. “왜”가 부가의문문에 사용될 경우, 일반적인 *wh*-단어와 담화표지의 중간적 성향을 지니며, 수의적으로 사용된다는 분포적 특성과 상적의미의 동사와 결합한다는 의미적 특성을 지닌다.

본고의 핵심적인 접근법은 문장의 외연과 내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분석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기존 통사론 및 의미론적 설명으로만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어서 화용론의 연구 영역이 된다. 이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향후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자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발견 및 분석을 통해 화용론의 연구 영역 확장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휘 공기제약 등을 통해 화용론적 주제에 대한 일부 형식적인

검토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도 본고가 화용론 연구에 기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지영. 2007. Emphatic questions.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월례발표회.
Grewendorf, Günther. 2001. "Multiple *Wh*-Fronting." *Linguistic Inquiry* 32(1), 87-122.
Huang, C.-T. James. 1982. "Move WH in a language without WH Movement." *The Linguistic Review* 1, 369-416.
Pesetsky, David. 2000. *Phrasal movement and its kin*. Cambridge, MA.: MIT Press.

소속: Dep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Washington

접수: 2010.01.18

게재결정: 2010.03.08